

손민숙 연구원

## 요약

보험산업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손해보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생명보험 관점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는 사망률 및 건강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침. 기후위험에 대응하여 국가별 노력이 진행 중이나 건강위험 관련 구체적 대응은 아직 부족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자연재해 위험의 증가로 인한 물리적 위험 및 경제적 피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생명보험 관점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심화시켰으며 추산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초래하며 주로 손해보험 및 재보험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의료·보건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 관점에서도 기후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sup>1)</sup>
    - 매개 전염성 질병 증가, 대기 질 저하, 급격한 온도 상승, 물과 식품의 오염,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영향은 사망률과 질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또한 생계 수단 및 주거 안전, 의료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침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열사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5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소득이 적은 국가 및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sup>2)</sup>
- 대기오염과 환경 변화 등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적 요인에 따른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임<sup>3)4)</sup>
  - 화석연료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2018년 기준 2조 9,000억 달러이며, 2030년까지 건강 관련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연간 20~40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됨

1) WHO(2021. 10. 11), "COP26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2) WHO(2021. 8. 10), "Fast Facts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3) WHO(2021. 10. 11), "COP26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4) WHO(2021. 8. 10), "Fast Facts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약 1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탄소 완화 조치 실시 비용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식품의 생산, 포장, 유통 시스템의 전환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연간 약 1,1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기후변화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및 기술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신기술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음<sup>5)</sup>
-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물리적인 건물 및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직접적인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며,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됨
    -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은 물리적 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 달라짐
    - 부동산 보험 등 재산보험을 통해 일부 손실은 상쇄가 가능할 것이나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심화될수록 자산 부문에 대한 영향은 증가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측은 아직 어려우나 정책 및 법률 변화, 기술적 위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위험의 영향력은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반면 경제성장의 감소 및 인구 이동,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연쇄효과를 동반할 수 있음
- WHO는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이 진행 중이나 건강위험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sup>6)7)</sup>
- WHO의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의 67%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취약성 및 적응력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현재 실시 중이며, 77%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보건·기후변화 관련 계획 또는 전략을 마련하였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금과 인적 자원의 부족, 기술적 제한 등으로 실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회·구조 등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의 계획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회복력, 적응력 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고 위험의 규모와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보험산업 또한 다중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음

5) Geneva Association(2021. 2),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for the Insurance Industry"

6) WHO(2021. 10. 11), "COP26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7) WHO(2021. 11. 8), "WHO health and climate change global survey report"